

## 사노피-아벤티스, 보건복지가족부와 R&D 투자 MOU 체결

-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의약품 연구개발에 총 700억 원 규모 투자 -

(2009년 6월 16일-서울)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아벤티스(대표 크리스 비바커)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국내 의약품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마크 클뤼젤(Marc Cluzel) 사노피-아벤티스 연구개발 총괄 담당 부회장과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16일(화)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유럽 1위이자 전세계 4대 제약사인 사노피-아벤티스는 복지부와의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2013년까지 국내에 총 700억 원을 투자하고, 기술 및 인적자원을 통해 국내 신약 개발과 R&D 인프라 선진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신약개발에 앞선 노하우를 가진 글로벌 기업과의 교류가 확대됨으로써 국내 의약품 연구개발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세계 유력 제약기업과 국내 제약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연구개발 제휴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꼽고 있는 제약산업이 한국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노피-아벤티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국내 R&D 투자 및 제휴에 나선 첫 번째 글로벌 제약기업이다.

이번 협약이 이뤄지기까지 사노피-아벤티스 R&D 임원진은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해 바이오벤처, 제약기업, 연구기관 관계자를 만났다. 그 결과 한국이 기초 연구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최첨단 지식 집약 산업인 제약 산업에서 향후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해 이번 투자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노피-아벤티스 마크 클뤼젤 부회장은 “한국의 강점과 사노피-아벤티스의 강점을 결합, 시너지효과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기술과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이번 협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서 “한국과의 공동 연구개발 노력을 통해 우수한 신약개발을 앞당기고 한국의 제약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상호 가치적인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사노피-아벤티스의 주요 협력 내용을 보면, 이번 투자는 R&D의 연구(Research)와 개발(Development) 양쪽 모두를 아우르는 전방위 투자라는 점과 국내 제약 및 바이오산업의 인프라 향상 및 인적 자원 개발에 공헌할 수 있는 투자라는 점이 눈에 띈다.

초기임상시험 실시를 확대하고 모든 임상시험 단계에서 연구기관의 참여를 확대해 글로벌 임상 연구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인에게 특히 발생률이 높은 질병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혈액/조직 은행 설립 등 ‘한국 맞춤형’연구가 포함되어 의미를 가진다.

## [주요 협력 내용]

- ① 전세계 시장에 신약의 동시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초기단계 임상시험의 한국내 실시를 확대하고, 복합제 신약개발 임상시험에서 한국을 참조국가(reference country)로 선정하는 등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 \* 참조국가(reference country): 의약품 최초 개발국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에서 허가받은 사항을 근거로 해서 다른 나라에서 의약품 허가를 득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함
- ② 백일해 등의 특정 질환에 대한 한국 내 연령대별 질환 발병률 및 질환 감염 경로에 대한 연구 데이터를 구축해 백신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 ③ 혈액·조직 은행을 한국에 설립해 한국 및 아시아 지역에서 이환율이 높은 바이러스성 간염 및 당뇨와 관련된 유전자 정보를 구축하고, 진단 및 예후와 관련된 ‘대리 표지자(Surrogate Marker)’를 발굴하는데 기여한다.
  - \* 대리 표지자(surrogate marker): 환자의 임상상태나 중증도를 간접적으로 반영하거나 진단 또는 예후 예측시 간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실험실적 인자(세포, 단백질, 항원 등)를 말함
  - \*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바이러스성 간염 유병율이 높으며, 항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내성이 강해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 같은 유전자 연구를 통해 한국인에게 특수한 발병 원인을 규명하고 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확인하고자 함.
- ④ 의약품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위하여 국내 의료 및 의약 연구진과 간호·약학 관련 학과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훈련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⑤ 한중일간 R&D 제휴 및 교류를 촉진하는 3개국 공동 R&D 연례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임상시험 지침을 통일시키고 임상연구 데이터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의약품 허가제도 조화를 촉진시키며, 질병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 이들 국가간 진단 및 치료 가이드라인을 일치시키는데 공헌한다.
- ⑥ 신약물질 발굴을 위해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과 신약개발 협력, 투자, 기술제휴, 라이선스 계약 등 ‘연구(Research)’ 부문에서 다양한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 \* 사노피-아벤티스가 가진 연구개발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 제품 생산 및 상용화 노하우 등의 강점을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결합하는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기업 및 연구소들이 가진 혁신 기술을 글로벌 사업화하고 기초연구와 임상시험을 연결하는 중계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한편, 이번 복지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노피-아벤티스는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유럽 1위의 세계적인 헬스케어 기업으로, 매년 순매출의 16%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2008년도 R&D 투자액은 46억 유로(한화 약 8조원)에 달한다.

###

### <사노피-아벤티스 개요>

사노피-아벤티스 현황	(주)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및 (주)사노피 파스퇴르 코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사: 프랑스 (파리)</li> <li>○ 분야: 전문의약품(세계4위), 백신(세계 1 위), 일반의약품(세계 6 위), 동물의약품(세계 3 위) 등</li> <li>○ 전 세계 100 여 개국 진출(10 만여명)</li> <li>○ 매출액(세계 4 위): 27,568 million 유로(한화 약 49 조원)('08) * 전년대비 +3.7% 성장</li> <li>○ 주력제품: 플라빅스(죽상혈전증치료제), 아프로벨(고혈압치료제)엘록사틴(항암제), 탁소텔(항암제), 란투스(기저인슐린), 악토벨(골다공증치료제) 등</li> <li>○ R&amp;D 투자비: 4,575 million 유로 (한화 약 8 조원) ('08, 매출액의 16.6%)</li> <li>- R&amp;D 센터 현황: 전세계 29 개소</li> <li>- 연구원 약 1 만 9 천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노피-아벤티스 그룹의 한국 법인 (제약 및 백신)</li> <li>○ 대표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약부문: 파브리스 바스키에라 (Fabrice Baschiera)</li> <li>- 백신 부문: 에민 투란(Emin Turan)</li> </ul> </li> <li>○ 설립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약부문 : 1985 년</li> <li>- 백신부문 : 1977 년</li> </ul> </li> <li>* 1964 년 한독약품과 공동투자 협약을 통해 한국시장 진출</li> <li>○ 직원수::약540명(제약및 백신)</li> <li>○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약부문: 3,670 억원('08)</li> <li>- 백신부문: 303 억원('08)</li> </ul> </li> <li>* 한독약품 공장을 통해 주요제품 국내생산</li> <li>* 본사 직속의 R&amp;D 부서를 한국법인에 설치하여 글로벌 임상시험 진행</li> </ul>